

The Change of Church School in Korean Protestant Christianity based on the statistical data of the Seoul North-west Presbytery in the Presbyterian Church

Youngsu Kim*

Yung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 of church school in Korean Protestant Christianity based on the statistical data of the Seoul North-west Presbytery in the Presbyterian Church. Korean Christianity has decreased in number since 2000. Church School has also significantly declined in number under the influence of Covid-19. It is considered as a crisis since 70.6% of adult members came back to church whilst only 47% of children returned to church.

CONTENTS In order to accomplish this, statistical data will be dealt with. This research describes the phenomenon of the decline of Korean church school, examining its characteristics and analyzing what the constituent elements for children's religious life are.

RESULTS As a result, it suggests that among the constituent elements relationships are the most influential on the religious life of church school children. The theory that children are affected by other relationships apart from family is not applied under Covid-19. It illustrates that the continuity and strong bond of relationships are more important than other elements. The contribu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it analyzes and interprets the phenomenon of the decline of church school, based on the data.

KEY WORDS church school, protestant christianity, decline, religious life, family

* Corresponding to Youngsu Kim (Lecturer, Department of Theology, Yung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E-mail : brontto@naver.com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예장 통합 서울 서북 노회 통계자료를 통해 본 한국 개신교 교회학교의 변화

김영수

영남신학대학교 대학원 강사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전후 한국개신교의 교회학교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교인 수는 2000년대 이래 계속 쇠퇴하고 있다. 교회학교도 전반적인 맥을 같이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방역 해제 후, 장년층은 70.6%가 돌아왔지만, 교회학교 어린이와 학생들의 회복률은 47%이다. 한국교회 교회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 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 논문은 이런 변화에 대한 학문적 분석을 시도한다.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쇠퇴하고 있는 현상을 기술하고, 그 흐름의 특징은 무엇인지,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데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교회학교 어린이와 학생들의 종교 생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관계이다. 학자들은 연령에 따라 종교 생활을 하는데 아이들이 다른 관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주장해 왔다. 아주 어릴 때는 가족의 영향을 받고 차츰 교회의 선생님이나 사역자의 영향을 받고 최종적으로 친구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연령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가족이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교회의 선생님이나 종교인 또는 또래 집단 친구들의 영향보다 가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기간 중에는 관계의 연속성과 강도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교계나 학계에서 추측하고 있었던 현상을 통계를 통해 제시하고자 했으며 이 현상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교회학교, 개신교, 쇠퇴, 종교 생활, 가족

I. 서 론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오고 난 후 약 100년간 개신교는 꾸준히 성장했다. 하지만 2000년대 전후 정점을 찍고 한국개신교는 그 후부터 쇠퇴 국면에 접어들었다. 2012년에 쓴 “한국개신교의 현재와 미래”라는 신재식의 논문에 의하면, 한국교회는 이미 내부에서 교회 성장이 정체되고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는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Shin, 2012: 89). 그래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의 통계 결과에 교계와 학계는 의외라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학계와 교계는 개신교의 쇠퇴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는데, 2015년 통계청 자료는 2005년 840만 명(18.2%)에서 2015년 967만 6000명(19.7%)으로 개신교인 수가 늘었다. 학자들은 이 숫자가 가나안 성도 때문이다 또는 신종교 때문이다 분석을 하고 있지만 어떤 것도 추측일 뿐 정확하지 않다. 명백한 건 응답자들이 가나안 성도들이든 신종교인들이든 상관없이 교계도 학계도 제도 교회의 쇠퇴를 감지하고 있다는 것이다(Lee, 2015: 369).

종교가 성장하거나 정체되거나 쇠퇴할 때는 독특한 특징들이 나타난다. 문화마다 종교마다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어떤 현상들이 관찰된다. 예를 들면, 데일(Dale)은 그의 책 *To Dream Again*에서 쇠퇴하고 있는 교회공동체는 특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증상이 향수병이라는 공동체의 우울증이라고 말한다(Dale, 2004: 105-116). 쇠퇴하고 있는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자주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회자되고 현실에 충실하지 못한다. 또한, 향수병은 현재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지 못하게 한다(Dale, 2004: 105-116).

루이스(Lewis)는 *Ecstatic Religion*에서 유사한 현상을 다르게 분석하는데, 그는 한 사회 안에 있는 주류종교와 비주류종교의 특징을 비교한다(Lewis, 2002: 114-159). 주류종교의 신자와 성직자는 주로 남성이며 도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비주류종교의 신자와 성직자들은 여성이나 하류층 남성들이며 기복적인 성향을 가진다고 한다. 주류종교는 권력과 관계되어 있지만, 비주류종교는 신비적이고 영적인 힘에 의존한다. 주류종교가 비주류종교가 될 때 성직자그룹에 여성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 비주류종교가 주류종교가 될 때는 권력 중심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은 남성이 사제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 사회에 있는 종교라도 그 종교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장하느냐 쇠퇴하느냐에 따라서 종교적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가 성장하고 쇠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은 이전과 다르거나 그 사회에 있는 다른 종교와 양상이 달라지게 된다. 개신교는 한국에서 거의 한 세기 동안 성장했던 종교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개신교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는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었다. 하지만 약 10-20년 전부터 심화되고 있는 개신교의 쇠퇴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개신교가 성장할 때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교세에 초점이 맞추어지다가 쇠퇴가 시작될 때 쯤 개신교 안팎에서 목회자의 언행 불일치, 이웃 종교에 대한 배타성, 물질주의, 기복적 신앙과

같은 비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Ryu, 2013: 84).

교회학교에서 관찰되고 있는 현상들도 이 연속 선상에서 분석될 수 있다. 교회학교는 교회 안에 어느 부서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다. 현재 한국교회 교회학교는 교계와 학계 할 것 없이 교회학교의 존립을 고민하고 있다. 2000년대 이래 교회학교의 쇠퇴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중점을 둔 것은 효과적인 교회교육에 대한 부분이었다. 어떻게 교육을 잘 시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하지만 최근 나온 통계를 보면 개신교의 교회학교의 상황이 심각하다. 특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출석률이 심각하게 줄었다. 본 논문은 현재 한국교회 교회학교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 통계를 보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코로나19 시기를 지나고 있는 한국의 교회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 그런 상황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분석과정에서 자연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요인은 배제한다. 자연적인 인구감소도 교회학교의 쇠퇴에서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나 교회학교가 코로나19 이전보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른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 통계 전문기관인 지앤컴리서치가 예장 통합 서울 서북 노회를 대상으로 한 통계자료이다.¹⁾ 이 자료는 예장 통합 서울 서북 노회가 노회 차원에서 교회학교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조사였다. 이 조사에 참여한 목사는 총 155명으로 주로 담임목사들이었지만 7.7%의 부목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7.1%는 여성 목회자들이었고 나머지는 남성 목회자들이었다. 응답자들의 교회는 소형교회부터 대형교회를 포함하는 것으로, 30명 이하 47.1%, 31-50명 16.1%, 51-100명 11%, 101-1000명 21.9%, 1001명 이상 3.9%의 교회가 설문에 참여했다. 조사 기간은 2022년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15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모바일 조사로 진행되었다.

이 조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 조사대상이 예장 통합 한 교단에 국한되어 있고, 서울이라는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교회 교회학교 전체를 대변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각 교단마다 상황이 다르고 지역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 예장 통합은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군소 교단의 상황과 다를 수 있다. 특별히 지역이 서울이라는 점은 지방의 상황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명백한 한계를 지닌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목사들의 비율도 한국교회 전체 비율과 다를 수 있으며 한국교회의 담임목사 성별 비율과도 다를 수 있다.

1) 지앤컴리서치 산하에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있고, 두 기관들은 개신교 통계를 다루는 통계 조사 전문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 몇 가지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통계이다. 첫 번째, 이 자료는 하나의 표본이기는 하지만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예장 통합 서울 서북 노회가 한국의 다른 교단과 노회라는 큰 맥락에서 봤을 때 매우 두드러지게 다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조사는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일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두 번째,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교회학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국교회에서 일을 하는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도 교회학교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명백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는데 이 자료는 그에 대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교회학교 현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세 번째, 지금까지 교회학교에 대한 통계자료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계 조사가 한정적이었고 교회학교 학생 수 외에 노회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는 드물었다. 학위논문 등에서 개인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경우 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논문 주제와 관련된 것으로 질문이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조사는 다양한 질문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 자료가 통계 조사 전문기관에서 나온 자료라는 점에서 자료의 공신력이 인정된다. 연구자 개인이 한 설문 조사보다 더 많은 타당성과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개인 연구자가 선별하는 것보다 조사 표본이 더 객관적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표본자체가 오염되거나 편중될 가능성이 더 작다.

이 조사는 크게 5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1) 교회학교 설치 현황, 2) 교회학교 운영 실태, 3) 코로나19와 교회학교, 4) 향후 교회학교 운영, 5) 청년부 운영 현황이 그것이다. 첫 번째 항목에는 교회학교 운영 여부, 학생 수, 부서별 설치 현황, 지도자 배치 현황, 교회학교 미운영 이유, 성장지체이유,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항목이 있다. 두 번째 분류의 하위항목은 담임목사의 교육 철학, 운영의 통일성, 운영 여건, 사역자와 교사, 교육내용, 가정과의 연계 등에 대한 질문들이 있다. 세 번째 항목에서는 교회학교 온라인 예배 실태, 온라인 예배 현황, 공과 공부 현황, 교재, 비대면 예배와 교육의 어려운 점, 교회학교 참석인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배 방식 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네 번째는 교회학교 교육구조 변화 필요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교회학교 준비 사항, 교육내용, 노회 지원에 대한 의견, 거점형 교회에 대한 내용, 교회학교 발전을 위한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은 청년부 운영 여부와 참석인원, 참석인원 변화에 대한 질문들이 있다.

III. 연구결과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미 수도권 교회에서도 교회학교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교회학교 쇠퇴는 더 이상 농어촌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도 관찰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 보고서는 이에 대한 좋은 예이다.

1. 교회학교 학생 수의 감소

황병준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기록적인 성장과 부흥을 한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교회학교의 부흥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Hwang, 2011: 718). 교회학교의 부흥은 부모들 즉 장년의 부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회학교가 중요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이 글을 쓴 2011년 당시 교회학교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이것은 2006년 박미라의 연구에서도 2013년 박은혜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보고되고 있는 부분이다(Park, 2006: 484-486; Park, 2013: 318).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교회학교의 쇠퇴에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병준이 지적하듯이, 한국교회 교회학교에 대한 전체 자료나 감소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객관적인 증거의 부족으로 인해 학문적으로 쇠퇴 현상을 입증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었다(Hwang, 2011: 719). 다만 교단별로 교회학교 학생 수를 파악한 자료들이 산발적으로 있을 뿐이었다.

가령,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서울 서북 노회가 속해 있는 예장 통합 교회학교에 대한 학생 수도 예장 통합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webpage, 2022.10.9.). 예장 통합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11년간의 통계 추이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예장 통합의 교회학교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최근 10년 통계만 봐도, 2011년 전체 교회학교 학생 수는 501,298명이었지만 2020년 308,464명, 2021년 276,851명으로 22만 명 이상이 줄었다. 줄어든 폭이 다르기는 하지만 영아부에서 중고등부까지 모든 부서가 2011년에 비해 2021년에 약 40% 줄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었고,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난 지금 시점에서는 감소폭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지앤컴리서치가 전국에 있는 예장 통합 소속 담임목사 9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 이전 대비 교회학교 예배 참석 정도는 2022년 4월 24일 기준 47%였다(Ji and Com Research, 2022.5.20.). 이 수치는 비슷한 시기 진행된 조사의 장년 예배참석률이 70.6%였던 것과 대조된다(Ji and Com Research, 2022.5.13.). 교회학교 회복률은 어른보다 훨씬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이다.

서울 서북 노회의 69.3%의 교회들도 교회학교 예배참석률이 코로나19 이전보다 감소했다고 보고했으며 증가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2.3%에 그쳤다. 그 2.3% 중에 100명 이하의 교회에서 증가했다고 대답한 교회는 한 곳도 없으며, 1000명 이상 교회 6개 중 1개 교회가, 100명 이상 교회 34개 중 1개가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전체 응답자의 단 2명만 교회학교 출석률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이 결과는 김도일이 실시한 교회학교 통계와는 다른 결과이다. 김도일이 2021년 7월에 3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6.5%의 교회학교가 재적인원이 증가했

다고 응답했다(Kim, 2021: 23-25). 하지만 김도일의 보고서는 응답자의 26.3%가 1000명 이상 교회의 담임목사, 부목사, 평신도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6.5%가 증가했다는 조사는 신빙성이 없다. 또한, 응답자들 비율도 담임목사 19.7%, 다음세대 목회자 67.8%, 다음세대 교사 12.5%로 균일하지 않으며, 각 응답자 군 개별통계가 세세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변수를 고려하여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한국교회 전체 분포에서 26.3%가 1000명 이상의 교회가 아니며, 응답자 26.3% 중 다음세대 목회자인 부목사들이 1000명 이상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표본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김도일이 보고한 교회학교 재적인원이 증가했다는 6.5%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서울 서북 노회 통계의 경우, 현장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포함했다는 점에서 이 응답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규모가 큰 교회이거나 설교자가 인기가 많은 교회일수록 온라인 예배 동영상 조회 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규모가 큰 교회는 온라인 예배 동영상을 만들 인적·물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만들고 양질의 동영상 예배를 송출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고, 규모가 있는 교회이거나 유명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들은 동영상 조회 수가 늘었다. 따라서 여기서 더 의미있는 자료는 교회학교의 현장예배 회복률일 것이다.

또 하나 주의 깊게 볼 자료는 2022년 조사에서 전체 교회 43.2%가 교회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통계이다. 10개 중 4개 교회는 교회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교회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 44.3%도 20명 이하의 학생이 있다고 대답했다. 다시 말하면, 전체 155명의 응답자 중 약 106명의 교회는 교회학교가 없거나 교회학교가 있어도 20명 이하의 학생들이 있다는 말이다. 49명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만 교회학교 인원이 20명 이상이다. 조사대상 교회의 약 3분의 2의 교회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거나 어린이와 학생들의 출석률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이다. 학계나 교계가 지적해 온대로 지속적으로 교회학교가 감소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교회학교 학생 수 감소폭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각보다 더 심각해졌다. 조사한 지역이 중대형 교회들이 더 많은 서울이라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 중소도시나 읍면 단위 교회의 경우 이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할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학교는 2000년대 이래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그 감소폭이 심각하게 증가했다.

2. 교회학교 감소와 교인 자녀들의 비율 증가

개신교의 교회학교가 쇠퇴하고 있는 것과 교회학교의 교인 자녀 비율과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 같다. 최근 기독교 신문과 조사보고서에서 교회의 가정 종교화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다(Ministry Data Institute, 2021.6.25.).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기독교인인 중고생이 85%였다. 2019년 10월 교회 출석 중고생의 모태신앙

비율은 51%였으나 2021년 4월 모태신앙 비율은 60%로 9%포인트 증가했다고 한다(Ministry Data Institute, 2021.7.10.). 이 조사보고서는 이 통계를 근거로 한국개신교가 가족 종교화되고 있다고 보고한다. 덧붙여 신앙생활에서 가정의 중요성이 더 증가했고 신앙을 아이들에게 전수 하는데 가정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실 가정과 교회의 연계는 오래전부터 논의된 주제였다. 이 논의는 외국 학계와 교계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18세기 말 영국의 로버트 레익스(Robert Raikes)가 시작한 주일학교 운동을 시작으로 교회교육은 교회에서 학교-교수형 범례로 진행되어왔다. 물론 웨스트호프(Westerhoff)나 마리아 해리스(Maria Harris)같은 학자들은 교회교육의 학교-교수형 범례에 대해 비판하면서, 신앙공동체-문화화 범례를 주장하거나 교육의 범주를 교회 전 생활로 이해하고 보다 큰 관점에서 교회교육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Westhoff, Jung trans., 1983; Harris, Go trans., 1997). 하지만 이들의 이론은 교회에 국한되어 있는 한계가 있었다. 이들은 둘 다 교회교육을 교회에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20세기 말부터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 가정의 중요성이었다. 교회교육에서 교회의 역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제임스 스마트(James D. Smart)는 교회교육은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했지만, 주일학교 운동은 교회의 교육을 제한하게 했다고 비판했다(Smart, Jang trans., 1991: 9). 스마트는 교회 예배, 가정, 교회학교라는 세 교육기관을 강조했는데 이 세 기관은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그는 교회 예배와 가정은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많이 상실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회복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Smart, Jang trans., 1991: 109).

최근 코로나19 이후 한국 학계와 교계에서도 뉴노멀 시대에 교회교육은 “교회와 가정의 연계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hin, 2022: 113-114). 가정이 다음세대의 신앙을 형성하고 전수하는 핵심적인 터전이 되었다는 것이다(Shin, 2022: 114). 유사한 맥락에서, 목회 데이터연구소 보고서도 지금 한국의 일부 교회들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한다(Ministry Data Institute, 2021.6.25.).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서울 서북노회 통계자료에서도 목회자들이 교회학교의 교육구조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달라져야 하는 첫 번째 것이 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보고했다(Ji and Com Research, 2022.4.26.).

위의 보고서와 연구들은 자녀의 신앙형성에 부모가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져야 교회학교가 달라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모가 자녀를 교회에 보내고, 교회에 가도록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며, 일주일 중 더 많은 시간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교회 출석에 있어서 어린이들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 근처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모님과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어린이가 많아졌다. 상당수의 어린이는 부모가 교회에 가는 시간에 같은 차를 타고 교회로 이동하고 같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간다. 분명히 도시의 교회학교는 일부 학생들의 이동에 제한이 있다. 이것은 과거 동네교회를 다니던 것과 다른 상황이다.

따라서 부모가 교회에 오지 않으면 어린이가 교회를 오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코로나19 기간 중,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경향은 더 강하게 나타났고 부모가 현장예배에 오는 어린이들이 주로 교회학교에 오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가족 종교화되고 있고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족 종교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야 할 여지도 있다. 이것은 최근에 개신교의 교회학교가 가족 종교화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학교가 쇠퇴할 때 교인 자녀 비율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교회학교 성쇠와 교인 자녀 비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1년 반 사이 교회 출석 중고생의 모태신앙 비율이 51%에서 60%로 증가한 것은 가정의 신앙교육이 중요해졌다는 증거라기보다 중고등부가 쇠퇴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교회학교가 성장할 때는 비교인 부모를 둔 어린이와 학생들도 대거 교회학교에 유입되기 때문에, 교인 자녀 비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교인 자녀 숫자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인 자녀 숫자는 비교적 변화폭이 적게 된다. 부모가 교회에 와야지 증가하게 되는데 장년부와 교회학교가 동반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면 교회학교 참석률에서 교인 자녀 비율이 거의 증가할 수 없다. 따라서 교회학교가 성장세에 있다는 것은 기존 교인 자녀들과 더불어 비교인 자녀들의 유입도 많다는 것이다. 반면, 교회학교가 쇠퇴할 때는 부모가 교인인 학생들이 더 많이 남게 되는 경향이 있고, 비교인 자녀가 더 빨리 이탈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즉, 교인 자녀 숫자는 상대적으로 큰 변동이 없는 반면, 비교인 자녀 숫자는 성장기에는 더 많이 유입되고 쇠퇴기에는 더 빨리 감소하는 양상을 가지고 있다. 비교인 자녀들이 더 유동적인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교회학교의 숫자는 장년의 숫자보다 더 변화폭이 크고 유동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어린이와 학생들이 교회에 더 빨리 유입되고 더 빨리 유출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추적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자료는 어린이와 학생 그리고 장년들의 종교기관 유입과 유출 행태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IV. 논 의

코로나 기간 중 교인 자녀들이 더 많이 교회학교에 남아있었던 것이 가정의 신앙교육 때문이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해보자. 코로나19 기간 중인 2021년 4월 5-19일, 5세 이상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인 1500명을 대상으로 지앤컴리서치가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교육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Ji and Com Research, 2021.5.3.). 이 조사 항목 중 하나가 가정예배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응답자들은 ‘거의 매일’(9.9%), ‘주2-3회’(12.8%), ‘주 1회’(34.1%), ‘월 1-2회’(17.1%), ‘월 1회 미만’(26.2%)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응답했다(Ji

and Com Research, 2021.5.3.). ‘거의 매일’과 ‘주2-3회’가 22.7%였다. 또한, 신앙교육을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은 41.4%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Ji and Com Research, 2021.5.3.). 자녀 신앙교육의 구체적 방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48.1%는 모른다고 답했다(Ji and Com Research, 2021.5.3.). 물론 가정의 영향을 가정예배나 가정신앙교육에 국한 시킬 수는 없지만, 가정의 신앙교육이 교회학교를 나오는 아이들의 신앙을 형성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는 질문해 보아야 한다.

신앙이 형성되는 과정은 단층적이거나 단일 요소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현상이다(Roehlkepartain, 2006: 9).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예배나 교육만 신앙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고틀리브(Gottlieb)나 마티스(Mattis)와 같은 학자들은 신앙형성에 있어서 예배나 교육 같은 요소들보다 도리어 사회적 측면이나 관계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들은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신앙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동료 같은 대인관계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oehlkepartain, 2006: 10). 이들에 의하면 사람과 환경이 신앙형성에서 중요한데 그 환경은 문화, 가족, 학교, 신앙공동체, 이웃 등을 포함한다. 이들의 주장이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종교를 처음 접하게 되는 통로가 가족이나 부모를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종교를 처음 접하고 신앙을 형성하는 데는 개인적인 종교적 성향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일차적으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와 가정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난 아이는 개인적인 신앙 경험 이전에 이슬람 부모와 가정의 종교적 영향을 먼저 받게 된다.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들은 히잡을 해야 하고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배운다. 그들에게 종교는 삶이고 생활방식이다. 자연스럽게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나 사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인이 될 확률보다 무슬림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고 부모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자란다. 매주 부모가 교회에 갈 때 교회를 따라가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를 간다. 가정이나 사회, 공동체 등 외적 환경이 신앙형성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신앙이 형성되는 것은 개인의 문제와 선택임과 동시에 공동체적 경험과 현상일 수밖에 없다(Lerner, 1998; Lerner, 2002). 따라서 가정은 신앙형성에서 배제할 수 없는 곳이 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세속화 이후 한동안 가정의 종교적 역할은 축소되어왔다. 여기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한 시점이 2000년대 이후였다. 2000년대를 전후하여 기독교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정의 역할에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Barna, 2003; Fowler, 2004). 부모의 역할은 일반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교회교육에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Dugan, 2001: 1-22). 명백히 부모는 아이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직접 학습에 관여하기도 하고 부모의 학습관에 따라 자녀의 학습이 달라지기도 한다. 학습에서 부모의 중요성, 특히 한국에서는 아버지보다 대체로 자녀교육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어머니의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다. 많은 시간 아이는 어머니의 세계관과 사고, 학습에 대한 관점 안에서 교육을 받는다. 신앙교육에서도 부모의 영향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어린 자녀의 신앙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람 중 하나가 부모가 된다는 말이다(Boyatzis & Marks, 2006: 297-309).

특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복음주의적 성향을 가진 부모는 자녀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보수적이거나 복음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신앙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향이 있어서 학자들의 연구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부모의 신앙교육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 보수적이거나 복음주의적인 경향을 갖는 부모에 대한 연구들이 더 많이 진행되어왔다(Bunnell, 2016: 14). 초등학교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신앙교육을 연구한 버넬(Bunnell)에 의하면, 복음주의적 성향을 가진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차적으로 그들이 믿는 신앙적 가치가 그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자녀들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Bunnell, 2016: 172-173). 그래서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읽기, 기도, 성경암송, 예배, 신앙적인 대화 등을 하면서 신앙교육을 한다(Bunnell, 2016: 173).

하지만 부모와 함께 드리는 예배와 신앙교육 자체가 아이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것이 결정적이라 주장할 수 있으나 이것은 코로나19 기간 중 일어난 현상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 언급한 것처럼 교인들이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혹은 자주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지도 않았다. 부모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었으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자녀들을 집에서 열심히 가르치거나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게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왜 교인 자녀들이 쇠퇴기에 더 많이 남아있게 된 것일까? 왜 코로나19 기간 동안 더 많이 예배에 참석했을까?

스미스(Smith)와 크로스비(Crosby) 연구에 의하면, 연령에 따라 신앙을 형성하고 있는 아이들이 받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한다(Smith and Crosby, 2016: 1-15). 그들은 종교적인 환경 중 아이들이 자존감을 가지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지를 연구했다. 이들은 가족, 미션스쿨, 교회 어른들로부터의 영향, 교회 동료 그룹으로부터의 영향 등으로 나누어 연구했다. 연구 결과 7-8세 이하의 경우 가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회 어른들로부터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청소년기가 되면 친구들 그룹에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Smith and Crosby, 2016: 11). 종교적인 영향은 처음에 가족에서부터 시작되어, 교회학교 교사나 종교지도자 같은 교회 어른들, 그리고 친구 그룹에서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의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관계라는 것이다. 나이가 어릴 때는 가족이라는 관계가 중요하고, 나이가 점차 들면서 교회의 어른에서 친구라는 인간관계가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이 이론을 적용해 보면, 교회학교에 교인 자녀들이 더 많이 남아있었던 이유는 가정의 종교교육이나 종교의례 때문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서 형성된 인간

관계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이론은 코로나19 기간 중에 한국교회 교회학교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청소년기에는 동료 그룹의 영향이 더 절대적이어서 가정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초등학생들과는 다른 결과가 나와야 했다. 하지만 영유아나 유치부나 초등학생이나 중고등부나 상관없이 모든 부서가 약 40%대 초반으로 비슷하게 감소했다. 동료에 의해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중고등학생이든 가정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초등학생이든 차이가 나지 않았다. 모든 연령대에 상관없이 부모가 교인이 아닌 아이들이 많이 떠나고 교인 자녀들만 더 많이 남아있었다. 코로나19 기간 중에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에게도 부모의 영향이 더 많이 나타났다.

추측건대, 스미스와 크로스비의 이론과는 달리, 코로나19 기간 중에는 관계를 맺는 대상의 차이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관계의 연속성과 강도가 더 중요했던 것 같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스미스와 크로스비가 말한 것처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 교회의 어른들, 친구 그룹 순으로 다른 대상들의 영향을 받게 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차적 관계인 부모가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친구들의 권유나 교회 어른들의 독려보다 부모의 허락이 중요했을 것이다. 코로나19가 퍼지고 있었을 때는 교회 출석 여부가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과 직결된다고 생각해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참석 여부에 부모의 동의가 더 강하게 작용했던 것 같다. 스미스와 크로스비의 이론은 생명이나 치명적인 위협이 느껴지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작동하는 원리는 맞을 수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은 것이다. 요약하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부모가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쳤고 그것이 교회학교에 영향을 미쳤다. 아이들의 교회 출석에 영향을 미친 것은 가정예배나 가정의 신앙교육이라기보다 대인관계였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연속적이고 친밀한 가족관계가 다른 어떤 관계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아마도 지속적이고 강한 영향을 준 가장 중요한 관계가 가족이었을 것이다.

V. 나가는 글

지금까지 통계를 통해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2000년대 이래 하락하고 있던 교회학교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 현상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관계가 부모라고 주장했다. 교회학교 출석률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계였다. 그것이 부모이든 동료 그룹이든 아니면 교회의 어른들이든 교회학교 출석에서 대인관계는 중요하다. 어쩌면 아이들의 개인적인 신앙이나 생각보다 관계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코로

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연령별 영향력에 대한 이론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 부모의 영향력이 더 절대적일 수 있다.

장화선은 지금까지 교회교육이 부모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학교가 침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다(Jang, 2015: 272). 그는 논의를 전개하며 부모가 교회학교 침체의 원인이 되는 주요한 이유로 ‘교회학교보다 세상 교육에 대한 관심 집중’(47.2%), ‘자녀교육의 신앙교육에 대한 의지 및 중요성 인식 부족’(40.4%), ‘부모의 신앙심과 영성 부재’(10.0%), ‘교회학교에 대한 불신’(9%)이라는 통계를 증거로 제시했다(Yang, 2008: 86). 한국의 일반 교육에 대한 과열이 아이들의 종교교육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부모교육을 통해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신념의 일환으로 일부 교회에서는 청소년 부모를 위한 학교를 개설하기도 하고 강의를 하기도 하고 힐링캠프나 비전 트립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한다(Han, 2014: 9-12). 부모가 아이들의 종교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논의가 놓치고 있는 더 중요한 부분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자체에 대한 부분이다. 아이들의 신앙형성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관계의 강도와 연속성 그리고 관계의 질이다. 특히, 부모와 자식이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종교 생활에 대한 부모의 영향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나쁜 관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의례도 좋고 가정 신앙교육도 좋으나 종교교육에서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얼마나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일지도 모른다. 이 연구는 이미 나와 있는 자료를 분석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논의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가 부족했다. 하지만 이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한국교회 교회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분석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했다. 향후 더 많은 연구와 조사가 진행되어서 종교교육에 대한 더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References

- Barna, G. (2003). *Transforming Children into Spiritual Champions*. Ventura, CA: Regal.
- Boyatzis, C. J., D. C. Dollahite, & L. D. Marks (2006). The Family as a Context for Religious and Spiritual Development in Children and Youth. in *The Handbook of Spiritual Development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Eds. E. C. Roehlkepartain, P. Ebstye King, L. Wagener & P. L. Benson. Thousand Oaks, CA: Sage.
- Bunnell, Peter Wayne (2016). *Parental Involvement in Elementary Children's Religious Education: A Phenomenological Approach*. Unpublished Ph.D diss., Liberty University,
- Dale, Robert D. (2004). *To dream Again: How to Help Your Church Come Alive*. Eygene,

- Oregon: Wipf & Stock.
- Dugan, E. (2009). *Are Conservative Christian School Parents Involved? A Study of Parental Involvement in an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School*. Unpublished Ph.D. diss., Capella University.
- Fan, X. & Chen, M. (2001). Parental Involvement and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 Meta-analysi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3(1), 1-22.
- Fowler, L. (2004). *Rock Solid Kids: Giving Children a Biblical Foundation for Life*. Ventura: Gospel Light.
- Harris, Maria. *Fashion Me a People: Curriculum in the Church*. 고흥수 옮김 (1997). 회중형성과 변형을 위한 교육목회 커리큘럼.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Han, W. S. (2014). Church Education Panorama. *Educational Church*, 431, 9-12.
- Hankukgidokgongbo (2021.06.20.). Christianity, We worry about becoming Family Religion. [Web log post]. Retrieved from <http://statistics, Numbers>. Retrieved October 14, 2022, from <http://www.pckworld.com/article.php?aid=8968624851>.
- Jang, H. S. (2015). Strategies of Restoring Church Education in Korea Focused on Children and Youth Education. *Bible and Theology*, 75, 259-283.
- Lee, H. J. (2015). Changes in the Religious Population and the Protestant Denominations Seen from Statistics. *Theology and Ministry*, 44, 369-387.
- Lerner, R. M. (1998). Theories of human development: Contemporary perspectives. in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1.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Eds. W. Damon & R. M. Lerner. New York: Wiley.
- Lerner, R. M. (2002). *Concepts and Theories of Human Development* (3rd ed.). Mahwah, NJ: Erlbaum.
- Lewis, I. M. (2002). *Ecstatic Religion: A Study of Shamanism and Spirit Possession*. London: Routledge.
- Ministry Data Institute (2021.6.25.). The Faith of Young Christians: Their Faith is weaker than Adults'!. <Numbers> 101. [Web log post]. Retrieved from [http:// statistics, Numbers](http://statistics, Numbers). Retrieved October 14, 2022, from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koreadata&wr_id=152.
- Ministry Data Institute (2021.7.10.). Korean Protestant Christianity becomes Family Religion!. <Numbers> 55. [Web log post]. Retrieved from [http:// statistics, Numbers](http://statistics, Numbers). Retrieved October 14, 2022, from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koreadata&wr_id=106).
- Park, E. H. (2013). A Study on Commitment of Church School Teachers. *KSCRE*, 34, 317-348.

- Park, M. R. (2006). A Need Assessment of Korean Sunday School Teachers in Three Focused Groups.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12, 481-515.
- Roehlkepartain, Eugene C., Peter L. B., P. E. King and Linda M. W. (2006). Spiritual Development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Moving to the Scientific Mainstream. in *Handbook of Spiritual Development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Eds. E. C. Roehlkepartain, P. Ebstyn King, L. Wagener & P. L. Benson. Thousand Oaks, CA: Sage.
- Ryu, J. H. (2013). The Korean Church in Crisis and the Recovery of Faith. *Theological Studies*, 64, 82-107.
- Shin, J. S. (2012). The Present and Future of Korean Protestantism. *Studies in Religion*, 66, 87-113.
- Smart, James D. *The Teaching Ministry of the Church*. 장윤철 옮김 (1991). 교회의 교육적 사명.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 Smith, Erin I. and Robert G. Crosby III (2016). Unpacking Religious Affiliation: Exploring Association between Christian Children's Religious Cultural Context, God Image and Self-esteem across Development.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15.
- Westerhoff, John III.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정웅섭 옮김 (1983). 교회의 신앙교육.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 김도일 (2022). “뉴노멀시대, 다음 세대 신앙성장을 위한 플랫폼.” 김도일 외. 교회학교가 살아야 교회의 내일이 있다. 서울: 동연. (Translated in English) Kim, D. I. (2022). New Normal Era, The Platform of the Next Generation. Kim, D. I. et al. *There is Tomorrow for Church When Church School is Alive*. Seoul: Dongyeon.
-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homepage (2022.10.9.). Gyosehyeonhwang. [Web log post]. Retrieved from [http:// homepage, Chongwhoisogae](http://homepage, Chongwhoisogae). Retrieved November 14, 2022, from http://new.pck.or.kr/bbs/board.php?bo_table=SM01_05&wr_id=1.
- 신형섭 (2022). “뉴노멀 시대의 가정 신앙 교육의 요청과 실천 현장.” 김도일 외. 교회학교가 살아야 교회의 내일이 있다. 서울: 동연. (Translated in English) Kim, D. I. (2022) Christian Education at Home in the New Normal Era, The Platform of the Next Generation. Kim, D. I. et al. *There is Tomorrow for Church When Church School is Alive*. Seoul: Dongyeon.
- 양금희 (2008). 교회학교 진단 침체와 부흥. 서울: 쿤란. (Translated in English) Yang, K. H. The Stagnation and Revival of Church School. Seoul: Kumlan.
- 지앤컴리서치 (2021.5.3.).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교육에 관한 조사보고서. (5세 이상~고등학생

- 의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 조사, 2021.4.5.-4.19). (Translated in English) Ji and Com Research (2021.5.3.). Report on the Family Faith and Children's Faith Education. (Christians who have children from 5 to 19 years old, 1500 male and female, on-line research, April 5, 2021-April 19, 2021)
- 지앤컴리서치 (2022.4.26.). 서울서북노회 교회학교 실태 조사 보고서. (서울서북노회 소속교회 목사, 155명, 모바일 조사, 2022.3.25.~4.8). (Translated in English) Ji and Com Research (2022.4.26.). Report on the Church School of Seoul North-west Nohoi. (Pastors belonged to Seoul North-west Nohoi, 155 male and female pastors, mobile research, March 25, 2022-April 8, 2022)
- 지앤컴리서치 (2022.5.13.).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결과 보고서(개신교인 4차). (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1500명, 온라인 조사, 2022.4.15.~25). (Translated in English) Ji and Com Research (2021.5.13.). Report on the Change of Korean Church after Covid-19 (Protestant Christians 4th). (Protestant Christian Male and Female over 19 Years Old in Korea, 1500 male and female, on-line research, April 15, 2022-April 25, 2022)
- 지앤컴리서치 (2022.5.20.).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결과보고서(목회자 3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소속 담임목사, 981명, 모바일 조사, 2022.4.27.~30.). (Translated in English) Ji and Com Research (2022.5.20.). Report on the Change of Korean Church after Covid-19 (Pastors 3rd). (Senior pastors belonged to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981 male and female, mobile research, April 27, 2022-April 30, 2022)